

일제하 古下 宋鎮禹의 사상과 노선

심지연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시대적 배경과 일본 유학

고하 송진우는 1890년 5월 8일(음력) 전남 담양군 고지면 손곡리(현 금성면 대곡리)에서 아버지 송훈과 어머니 양씨의 8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옥윤으로 애칭을 ‘금가지’라고 하였다. ‘금가지’라는 이름은 태몽에서 나온 것으로, 양씨 부인이 채소밭에서 금빛 나는 가지를 따는 꿈을 꾸지 얼마 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태어나던 19세기 말 조선의 국내외 정세는 일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봉건적 억압하에서 민중들은 도탄에 빠져 신음했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계급은 내부 분열로 인해 무원칙한 파쟁에 몰두함으로써 외국의 침략을 조장하고 만 셈이었다. 이러한 실정이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동학과 같은 종교가 출현했다. 동학은 평등과 자유를 동경·지향하는 당시의 민심과 호흡을 같이하며, 정치적 성격을 띠고 널리 보급되었다. 이의 영향을 받아 고하가 다섯살 되던 해인 1894년 농민이 주력이 되어 봉건적인 지배계급의 폭압에 반대하여 대규모의 농민운동이 발생했다.

고하가 본격적으로 글을 배운 것은 일곱살 때부터로, 그는 성리학자인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의 친척인 기삼연(奇參衍)에게서 한학을 배웠다. 기삼연은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한때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의사로, 일인에게 쫓겨 피해 다니다가 송씨집에 기숙하면서 잠시 고하를 가르쳤던 것이다.

고하라고 하는 아호도 그가 지어준 것으로, 손곡리 고비산 밑에서 태어났고 고비산 같이 꿋꿋하게 살라고 지어준 것이었다. 그는 또한 어린 고하에게 대의에 살고 대의를 위해 죽으라는 인생관을 심어주었으며, 이러한 인생관은 어린 고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그로 하여금 대의를 위해 일생을 바치게 했다.

고하가 15살이 되던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조선은 외교와 재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박탈당한, 형해화한 정부가 되고 만 것이다. 이때 그는 백양사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고 있었으나, 1년 반만에 집으로 돌아와 신학문을 배우게 된다. 쇠국정책을 견지하여 외부세계와는 담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온 결과, 국권이 침탈당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생각한 부친의 강력한 권유 때문이

었다.

고하의 부친은 아들을 타이르는데 그치지 않고, 그 자신도 실천에 옮겨 사재를 기울여 신학문을 닦기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이것이 바로 담양학교였다. 그리고 고하를 창평에 있는 신식학교인 영학숙(英學塾)에 보냈다. 그는 이곳에서 배우기 시작한지 3개월만에 그만두기는 했지만,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를 비롯한 그 지방 청년들과 교우관계를 맺게 된다.

당시 몰락해가는 조선왕조를 구하기 위해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으나, 이완용 내각이 성립되고 나서는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계획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의 양위가 강요되었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일인관리가 부임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군대가 해산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내외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고하는 신학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유학을 생각, 당시 군산의 금호학교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있던 인촌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유학을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은 홍명희와의 만남이었다. 당시 홍명희(洪命熹)는 동경 대성중학교 학생으로서 금산군수로 부임하는 부친 홍범식(洪範植)과 동행하다가 군산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들에게 일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두사람은 보다 넓은 세계를 알기 위해 일본유학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들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1908년 일본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동경에 있는 홍명희의 하숙집에 짐을 풀고 그의 권유대로 정칙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에 입학, 중학교 입학준비과정을 마치고 1909년 봄 금성중학교(錦城中學校)에 입학했다. 그해 10월 안중근(安重根)의사가 만주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저격 살해하는 의거가 발생했다. 초대 통감으로서 조선의 국권을 전단하여 민족의 격분과 원한을 샀던 그가 조선을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 것을 계획하다가 암살당하고 만 것이다.

안의사의 거사를 접한 고하는 피가 끓어올라 귀국을 결심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주위의 만류로 대학입시 준비에 전념했고, 1910년에는 인촌과 함께 와세다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8월 원한과 치욕의 한일합방이 체결돼,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제에 의한 강제합방 소식을 들은 그는 '조국없는 사나이'로서의 비애를 느껴, 학업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자결도 생각해 보았으나, 살아서 안의사처럼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옛 스승인 기삼연선생을 찾아 나섰으나, 허사였다. 합방의 소식을 들은 선생은 집을 나간 채 연락이 없어, 소식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한겨울 내내 고향에 묻혀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한 끝에 고하는 다시 동경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학업을 계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단정을 내린 것이다. 이듬해 이른 봄 그는 새로운 각오 아래 다시 동경으로 건너갔다. 동경에서 그는 메이지대학으로 적을 옮겨 법학을 전공했다.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신의 포부를 펴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정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 사상개혁론

동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고하는 당시 같은 유학생이었던 최남선, 현준호, 신익희, 조소앙 등과 사귀었으며, 조만식과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학생친목회에 가입하여 이 단체가 단순한 사교 모임으로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관지를 발행할 것을 제의, 기관지인 「학지광」(學之光)을 창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학지광의 편집일을 맡아 보면서 “사상개혁론(思想改革論)”을 집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긴하고 시급한 문제는 사상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신시대는 신생활을 요구하고 신생활은 신사상에서 배태되므로,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다섯가지 분야에서 종래의 낡은 사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고하가 역설한 것은 ‘공자타파(孔子打破)와 국수발휘(國粹發揮)’였다. 공자가 위인중의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체계화한 유교는 옛것만을 숭상하는 모교사상의 원천이고 전제사상의 단서가 되며 배타사상의 표현이므로, 인류평등의 진리를 고조하며 사상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문명의 이상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유교를 도입한 이래 민족정신이 파괴되고 장렬한 무용사상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유교를 타파하는 것은 자기보호의 정당방위이며 시대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공교를 타파하는 대신, 그는 국수정신을 발휘하고,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서 출현한 우리의 조상을 숭배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사상개혁론에서 단군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독립을 향한 민족정신을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사상개혁으로 고하는 ‘가족제의 타파와 개인 자립’을 주장했다. 사회제도가 시대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변천되며 개혁되기 때문에, 구시대의 유물인 가족제도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가족제도란 봉건적인 대가족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제도는 사회발전에 장애물이 되며 나태의 근원이 되고 문벌과 혈통을 중시하게 되어 인재등용에 함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타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가족제의 타파는 가정의 화합을 가져오며, 사회의 발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불화를 초래하는 대가족제를 타파하고 개인이 자립함으로써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개인은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에 도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독자적으로 진출하여 사업을 완수해야만 사회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유동하는 통상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대가족의 노동에 근거하는 중농주의는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봉건적 유제의 타파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생각이었다.

세 번째의 사상개혁으로 고하는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를 주장했다. 여기서 강제연애란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부모에 의해 강요된 결혼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계급결혼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조혼의 폐해를 낳기 때문에 타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자유연애, 즉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교제에 의한 결혼은 빈부의 한계를 초월하며 계급의 귀천을 무시하고 지식의 비교를 하지 않게 되므로, 고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유연애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유연애를 고취하는 것은 남녀평등 사상을 주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의 사상개혁으로 고하가 내세운 것은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교육의 주장’이었다. 허영교육은 노동을 학대 천시하는 풍조를 낳으며, 물질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하고, 명예와 이익의 노예가 되어 생산을 도모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사물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을 일삼게 되어 사리에 어긋나는 영화를 갈망하게 한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실리에 입각한 교육에 힘쓰며, 민생에 필요한 것이라면 재능과 직분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요, 사회의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실리교육을 강조한 것은 조선시대의 문약함을 떨쳐버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명분에만 얽매어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발휘하여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창한 것이다.

고하는 다섯 번째로 ‘상식실업(常識實業)의 타파와 과학실업(科學實業)의 환흥(喚興)’을 주장했다. 상식실업이란 단순히 상식과 습관에 근거하여 적당히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로 인해 물리의 연구가 결여되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산업의 발달이 저해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럴 경우 제품이 조잡해져 외국의 물품이 도입되며, 사회의 신용을 타락시켜 결국 원료는 외국으로 유출되고 제품은 외국에서 도입되어 생활의 위기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과학 실업은 학술을 응용한 활동이며 분업이 발달하는 관건으로서, 소극적으로는 토산품을 보호하여 자위의 길을 도모하고 적극적으로는 과학을 활용하여 발전을 이루는 생활유지의 방편이며 산업발전의 터전이 된다고 보았다. 사상개혁론에서 그는 조선조 실학자들이 주장한 실사구시정신을 이어받아 과학을 중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하는 이러한 다섯 가지의 사상이 개혁되지 않는 한, 사회에는 남에 의존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며, 민족은 자립의 길을 구하지 않게 되어, 결국 투기에만 이목을 집중하게 되고 요행운수만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사회는 이와 같이 다섯가지 면에서 사상의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에만 文弱에서 벗어나 선진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이 길만이 식민지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주독립된 국가를 만드는 길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3. 교육계 언론계 투신

1915년 메이지대학을 졸업한 고하는 귀국하여 요양하다가 26살이 되는 1916년 인촌이 인수한 중앙학교의 학감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사상개혁을 강조했던 그의 교육계 투신이 이루어진다. 학감으로서 그는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와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민족자결주의와 피압박민족 해방운동에 고양되어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과 연계를 맺었다.

당시의 내외정세는 애국지사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이에 33인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이 준비되었다. 고하는 3·1운동의 준비과정에 깊이 개입되었으나, 후사라도 모호하기 위해 33인의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의 뒷일을 맡은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쳐 그는 48인의 일원으로 체포되었다. 1년 반에 걸친 구금생활을 겪은 고하는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 보안법 및 출판법에는 사전 모의나 계획에 가담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표면에 나타난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법이었기에 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는 종래의 무단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표방했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우리말 신문의 발행을 허용할 뜻을 비쳤다. 그 결과 1920년 1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3개 신문의 발행이 허가되었다. 그가 구속되어 있던 동안에 발생한 일이었다.

무죄 석방된 고하는 인촌의 권유를 받아들여 31살 되던 해인 1921년 9월 동아일보사의 사장에 취임했다. 그 후 그는 시세와 상황에 따라 사장 고문 또는 주필로서 동아일보를 주도하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동아일보와 관련을 맺으면서 지내게 된다. 언론을 통한 사상개혁의 실천에 나선 것이다.

고하는 취임사에서 동아일보가 창간되어 정정당당한 필법으로 험준한 세상을 돌파하며 진리를 천명하고 허위를 배척하며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명히 하였기에, 사회가 정론을 얻고 사람들이 가야할 바를 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사건이나 편견이 아니라 2천만 민중의 공의공론(公義公論)을 펴는 기관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언론의 공기설(公器說)은 그의 신념이 되다시피 한 것으로, 그는 「신동아」(新東亞)의 창간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즉, 신동아는 어느 일당일파의 선전기관이 아니며 어느 한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며, 조선민족의 공기(公器)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고하가 주장한 공기설에 입각하여 사실보도에 충실했는데, 이로 인해 일제의 언론탄압을 불러, 동아일보는 여러 차례 압수 및 정간처분을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후일 그는 공기설에서 후퇴하여 될 수 있는 한 말썽거리가 될 사설은 만들지 않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리하여 일부에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신문이 상처를 받지 않고 무사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면 말썽의 초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와 인연을 맺은 이래 고하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립대학설립운

동, 이충무공유적보호운동, 브나르도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교육을 통해, 충무공유적의 보호를 통해, 문맹퇴치를 통해, 그리고 조선물산의 장려를 통해 실력을 양성하고 민족혼을 살려 독립에 이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운동에 일제의 탄압과 박해가 있었음은 물론이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민족개량주의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하에서 변절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식민통치의 종식을 위한 길을 다각도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그는 또한 1925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한민족의 실상을 알리기도 했는데, 참석을 마치고 귀국하여 '세계대세(世界大勢)와 조선(朝鮮)의 장래(將來)'라는 논설을 썼다. 여기서 그는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각오를 다짐했다. 여기서 그는 한민족 자체가 현대문명에 대한 이해와 각성이 늦고 어두웠기 때문에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국제정세는 조선 내부의 사회적 변혁과 세계대세의 추이 및 동양정국의 위기로 보아 4-5년 지나지 않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인 풍운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러한 그의 예견은 적중되어 만주사변과 청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져 조선은 세계적인 전화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다.

이 논설에서 그는 한민족은 민족적 자유를 해결하고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타력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 자체 세력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독립은 자체의 힘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은 민족 자체의 단합이 확립되는 그날부터 해결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단결을 강조했다. 즉, 모든 것은 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무슨 주의나 무슨 사상을 아무리 선전하고 아무리 고취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의와 사상을 실현할만한 힘과 단결력이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처럼 그는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일환으로 동아일보를 통해 각종의 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4. 실력양성론

한편 일제가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로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자, 고하는 이제는 외부선전보다 내부의 조직을 견고하고 착실하게 하여 실제적인 세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세계 대세가 합리적으로 진전되고 있고, 민족의 지혜가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단지 원기를 진작시키고 단결과 훈련에 주력할 것과 한걸음 한치의 걸음이라도 나아가 실력을 양성할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인류사회의 대행진에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이

며, 역사상 영원한 기념탑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하는 민족의 단결과 실력의 양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분열하면 아무리 사상이 철저하고 훌륭하다고 할 지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하는 당시 분열되기 시작하고 있던 계급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민족문제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계급을 앞세워 민족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민족이 단결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었기에 당시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출범한 신간회가 해체되자, 그는 민족주의의 조직체를 사회주의 이론으로 해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민지 수탈정책에 의해 피폐해가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하는 실천궁행(實踐躬行)의 각오로써 농민의 문맹을 퇴치하며 상식을 보급하는 동시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업을 장려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농촌에서의 실력양성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제안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다분히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농촌의 피폐문제가 근본적으로 일제의 수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사회 경제적 현실을 떠난 상태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의 분석이나 방법론은 관념론에 치우치는 느낌이 없지도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고하가 완전한 관념론자라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자유는 평등에 있고 평등의 기초는 생존권 보장에 있다고 분석한 그는 ‘생존권이야말로 평민문화의 토대’라고 강조했다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평등과 자유의 실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볼 때 실력의 양성론이 궁극적으로는 평등과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문사 사장이라는 신분이었기에, 그는 ‘대중적이라기보다는 귀족적이며, 순정적이라기보다는 책사적’이라는 평을 받았고, 이러한 선입견은 반대진영에 의해 확대 선전되었다.

말썽 안되는 신문을 만들려던 고하의 방침이 위기를 맞은 것은 1936년 8월 손기정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부터였다. 당시 동아일보에 손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이 실린 것이다. 총독부는 이를 계기로 동아일보에 대해 정간처분을 내렸으며, 정간처분은 9개월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의 언론탄압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고, 철저한 검열하에 관급기사만을 보도해야하는 사태가 되고 말았다.

이것도 못미더웠던지 일제는 민족혼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말 신문을 폐간시켰다. 이로써 동아일보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동아일보가 폐간되고 나서 고하는 동아일보사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인 동본사(東本社)를 설립했다. 동본사의 사장에 취임한 그는 동아일보의 사옥을 반일전선의 상징처럼 유지하면서 일제말기를 보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그로서는 최선의 항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협조의 태도를 견지했다. 비록 직접적인 항일활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일제의 압력과 회유를 물리치며 해방을 기다린 것이다. 사상개혁을 주장했던 고하는 언론활동을 통

해 민족의 독립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조를 굽히지 않고 민족적 양심을 지키면서, 일제가 물러나 독립이 될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심지연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

동아일보 기자, 한국정치학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임.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